

東南亞 華僑史의 趨勢**

陳 荆 和*

東南亞地區에 있어서 中國人의 居住 혹은 移住(越南은 除外)는 대략 唐末 즉 9世紀末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唐代 後半期부터 大食・페르시아回教徒商人들이 海路를 통하여 東西貿易을 발전시켜 中國의 商人들로 하여금 海外通商에 興味를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東南亞 및 印度方面의 商業活動에 참가하게 하였다. 宋代에 들어와서는 趙汝适의 『諸番志』에 따르면 매년 정기적으로 中國의 商船이 東南亞各地와 南印度地區로 가서 貿易에 종사하였다. 당시 海外貿易에 종사하는 中國商人을 「綱首」라 불렀기 때문에 그 通商活動도 또한 「綱首貿易」이라고 하였다. 또한 宋代에는 福建의 開發이 크게 진전되어 泉州港은 外國貿易의 중심이 되었으며 때문에 당시의 「綱首」는 福建省의 漳州・泉州商人들이 많았다.

당시의 航海와 오늘날의 제트機時代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단지 季節風(Monsoon)을 이용하여 航行하는 大帆船이 이용되어 밖으로 나가는 華商들도 바람을 기다리기 위하여서나 혹은 商務를 위하여서도 目的地에서 越冬을 하고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中國으로 回航하였다. 이러한 습관을 「住冬」 혹은 「留冬」・「押冬」이라 불렀으며, 이밖에 「住番」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住唐」(外國商人이 中國에 와서 居住)의 對稱語에 불과하다. 貿易地의 接觸이 깊어짐에 따라서 唐宋時代의 綱首사이에는 現地政府를 대표하거나 通譯을 담당하여 中國에 朝貢하거나 貿易事務에 참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즉 綱首貿易과 住冬의 습관은 바로 宋代 이후 中國商人들이 東南亞各地에 居住하게 된 原因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住冬」(越冬) 즉 잠시적이고 또한 短期的으로 머물던 것이 東南亞地區에 있어 中國人居住의 가장 빠른 形態였다.

이와 같이 商人 및 船員들이 적극적으로 對外活動을 하는 이외에 古來에 또한 政治亡命者・犯罪人 및 難民들이 東南亞의 各地에 集團적으로 移住하였다. 이러한 消極적인 移住는 中國의 王朝가 交替할 時期마다 또는 內亂이나 戰亂을 만났을 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現象이었는 데, 단지 關係된 史料의 缺乏으로 그 初期의 具體의 사정은 확실하게 알수가 없다. 단지 唐末 이후에

* 홍콩 中文大學 教授(文庫), 華僑史

** 本稿는 陳荆和 教授가 1976年 6月 25日, 本所에서 發表한 內容을 번역 수록한 것이다.

이러려 零碎한 關係史料가 中國史 혹은 回教商人들의 旅行記에 散見되고 있어 그 概況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唐末 黃巢의 亂(875—885) 때에 적지 않은 廣州商民이 亂을 피하여 尸利佛逝(Srivijaya, 今 Sumatra 東南部 Palembang 一帶)에 갔고, 10世紀 때 아라비아 商人 Abul-Hassan Ali Elmasudi가 南海群島를 遊覽하여 『黃金牧地』(Les Prairies d'or)란 책을 썼는데 그 안에 華인들이 黃巢의 亂을 피하여 스마트라群島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특히 三佛齊地區가 많았다고 하였다. 『Java, Past and Present』에서 Campbell은 924年(後唐 同光 2年)에 中國의 大沙船 한척이 爪哇 三寶壠부근에서 침몰되어 船客들이 海岸으로 飄流, 直葛(Jegal)王에게 寶物을 바치고 王의 允許로 나머지 무리들을 모아 그곳에 定居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南宋의 高宗 紹興 30年(1160) 때에 占城에는 이미 「土生唐人」 즉 그곳에서 태어난 唐人 2世들이 貿易에 活動하였다. (『宋會要』 蕃夷七) 東南亞諸國人들에 따르면 華人을 「唐人」, 中國을 「唐山」이라 부르고 있다. 『明史』(卷 324) 眞臘傳에 「唐人者, 諸蕃呼華人之稱也」라 하였다. 中世紀의 回教徒들은 中國을 「Tanghaj」 즉 「唐家」의 譯音으로 불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海外華人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唐人」으로 부르고 있다. 南宋 咸淳 10年(1274, 南宋滅亡前 5年, 즉 文永의 役이 일어난 해)에 南宋人이 30척의 배에 妻子와 財物을 싣고 陳朝治下의 大越로 도망하여 昇龍城(오늘의 하노이)의 일부에 居住를 허락받았는데 이곳을 「街溝坊」(Nhài Vai Phuong 즉 布料를 販賣하는 街)이라 불렀다. (『大越史記全書』 卷5 陳 聖宗紀) 宋의 遺臣들이 印度支那半島방면으로 避難한 數字는 상당히 많은 數에 달하고 있는데 『宋史』(卷47・451)・『宋季三朝政要』(卷 6)・『元史』(卷 156 安南傳)・『大越史記全書』(卷5) 등의 記載에 따르면 占城方面으로 간 沈欽之, 大越方面으로 간 陳仲微一行 400人, 혹은 大越軍隊에 投入되어 元朝의 侵略軍과 對戰한 趙忠이 이끄는 部隊들은 모두 集團의 으로 이루어진 亡命性의 移住에 속한다. 이밖에 鄭恩肖(所南)가 이끄는 福建의 鄉黨이 자바의 耶加達(Jakarta)에 가서 王으로부터 Peteakon 地區를 下賜받고 26채의 집을 짓고 定住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13世紀 후반에는 眞臘에 많은 中國船員들이 그나라 生活이 平安함을 부러워하여 때때로 도망하여 와서 居住하였는데 그중에는 35年동안이나 머물렀던 温州人 薛氏가 있으며 이와같은 長期的인 居留者와 새로이 온 中國人을 구별하기 위하여 「新唐」이라 불렀다. (周達觀, 『眞臘風土記』 13世紀末에 撰)

이상의 各種 관계된 史料들을 綜合하여 보면 唐末부터 元初(9世紀後~13世紀末)에 大越(今 北越)・占城(今 中越)・眞臘(今 캄보디아 및 南越)・三佛齊(즉 Sumatra 東南部)・말레이半島(Ligor, Patani, Kelantan, Trengganu, Pahang)・자바 및 브르네오(Brunei) 등 각지에 華인들이 적지않게 集團의 으로 居住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占城에는 「土生唐人」, 眞臘에는 「新唐」의 存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 말한 各地에 이미 보편적으로 初期의 華僑社會가 形成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약 우리는 南宋政府가 이미 東南亞貿易을 적극적으로 推進하였음을, 그리고 위에 말한 各地가 모두 당시의 國際貿易의 要衝地였다는 사실을 주의한다면 위에 말한 推論은 대

략 믿을수 있는 것임을 알수가 있다. 여기에 若干의 史實로서 傍證할수 있는 것이 있다.

① 宋代의 佛囉安(말레이半島의 西岸, Beranang)에 「地人并唐人」이 觀世音菩薩의 祭典『島夷雜誌』에 참가하였고, ② 近年에 보르네오(Borneo)市內에서 Wolfgang Franke 및 陳鐵凡 兩教授가 墓碑 하나를 發見하였는데 그 碑文에 「有宋泉州判院蒲公之墓, 景定甲子男『應』立」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碑文중의 蒲公은 유명한 蒲壽庚의 一族으로 보이며, 「景定」은 南宋 理宗의 年代이고 甲子年은 1264年이 된다.

明代에 이르러 타이(暹羅)・자바(爪哇) 및 말레이地區에는 華人들의 活動이 크게 增加하였다. 『諸蕃志』에 따르면 暹羅灣沿岸에는 宋代에 中國船이 定期的으로 와 貿易한 地點으로 登流眉(今六坤 즉 Ligor)・蓬豐(Pahang)・登牙儂(丁加奴, 즉 Trengganu)・凌牙斯如(즉 北大年, Patani)・吉蘭丹(Kelantan)・佛囉安(말레이西岸 Langat河上의 Beranang) 및 日羅亭(Yirudingam) 등 말레이半島 中部의 각 土侯國들이다. 元代에 이르러 中國商船의 交易範圍는 또 다시 확장되었는데 汪大淵의 『島夷誌略』(1349—51年撰)에 따르면 위에 列擧한 地點 이외에 羅衛(즉 羅越? 말레이南部)・龍牙門(싱가포르 해협)・暹(速古台・즉 Sukhotai) 및 羅斛(Lavo, 즉 Lopburi)가 추가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元代에 中國商船의 交易範圍는 이미 말레이南部 및 湄南河流域에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14世紀中葉(1350)에 阿瑜陀耶(Ayuthya) 王國은 Ramadhibodhi I世가 건국한 이후 급속히 발전되어 暹羅의 政權을 統一하였는데 1370년에 이르러 明廷과 外交關係를 수립하여 이후 말레이의 각 土侯國으로 가던 通商의 華商들 船舶이 阿瑜陀耶城(華僑들은 大城이라 부름)에 集中하였으며 이 城은 印度支那(Indo China)半島 華人들의 通商貿易의 중심이 된 것과 같았으며 또한 14世紀末에는 이미 華人街를 건립하였다.

또한 永樂初年(1405—1406左右)에는 스마트라島 東南部の 占卑(Jamli)地方에 이미 廣東・泉州・漳州의 避難民 數千家가 있었으며 이들은 廣東 南海人 梁道明을 首領으로 하여 하나의 自立政權을 유지하고 또 한편 廣東人 陳祖義一派도 舊港(Palembang)地區를 차지하고 市中의 交易은 中國은 銅錢과 布帛을 사용하고 있었다. 陳祖義는 후에 三寶大監 鄭和와 충돌하여 鄭和에 의하여 체포, 中國으로 回送되었다. 그러므로 明은 이 地方에 舊港宣慰司를 설치하고 施進卿 및 그 子孫들을 宣慰使로 임명하였다. 사실 施進卿의 地方政權은 한편으로는 麻噠八歇(Mojopahit) 王國의 屬邦으로서 약 40년간 유지가 되었다. 같은 時期에 있어 자바의 杜板(Tuban) 港口의 人口는 단지 千餘家에 지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住民은 廣東人・漳州人이었으며 그 地域에서의 交易은 中國의 歷代銅錢이 通貨로서 사용되었다. 杜板동쪽에 錦石(Gresik)에는 또한 「新村」이라 부르는 순전히 中國人區域이 있었으며 永樂 11, 12年(1413—14) 사이에 村主는 廣東人이었고 人口는 千餘家로 中國의 帆船이 定期的으로 來航하였으며 市中에는 모든 商品이 가득차 있었다. 또한 당시의 泗水(Surabaya)에도 人口 1千餘家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華商들 이었다. 이와 같이 15世紀初葉의 자바華僑는 漳・泉州・廣東人이 주였고 그 중에는 또한 回教로 改宗한 이도 있었

으며 혹은 商業을 경영하는 이외에 麻噠八歇王國의 使臣 또는 通譯으로 中國에 왔던者가 적지 않았다. 黃衷의 『星槎勝覽』에 따르면 당시 滿刺加(馬六甲 즉 Malacca) 사람은 「皆身膚黑漆, 間有白者唐人種也」라 하였다. 이 文章은 華僑와 土着 말레이 婦女와 雜婚하였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明代에 들어와서 中國人の 海外 활약이 더욱 활발하여지게 된 原因은 먼저 永樂朝때 鄭和의 南海遠征으로 西洋을 대규모로 宣撫한 일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國際政治의 立場에서 본다면 이 일은 新興의 明이 당시 南海에서 霸權을 나누어 갖고 있던 麻噠八歇과 阿瑜陀耶兩國 사이의 勢力均衡을 뒤집고 들어가 中國의 勢力圈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例를 들면 舊港 宣慰使司의 設立) 반면 國際貿易의 觀點으로 본다면 中國의 官營貿易이 唐代 中期이래 印度・東南亞各地 및 中國沿海의 사이에 깊게 確立하고 있던 回教徒商業權에 대한 큰 挑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鄭和의 南海遠征은 실로 中國人の 海外發展에 補路가 되었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것은 明朝政府가 建國이래 「寸枝不下海」를 祖宗의 法으로 알고 계속 民間의 海外出洋을 嚴禁하는 政策을 取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洪武 4年(1371)에 明太祖는 靖海侯 吳楨에게 海禁을 실시하도록 命한 이래 대략 200年이 지난 隆慶 元年(1567)에 明穆宗이 福建巡撫 塗澤民的 建議를 받아드려 海禁政策을 廢止할 때까지 中國人の 出洋은 原則上 일체 禁止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海外에서 活動한 中國人은 바로 禁令을 어기고 出國한 商人・政治亡命者・難民 혹은 東南沿海의 海盜集團이었다. 中國의 史書상에는 이와 같은 人物들을 一括하여 「流寓」라고 부르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日本의 倭寇는 元末에 韓半島 黃海沿岸에서 활약하였고, 明初에 다시 華北・華中을 차례로 그들의 侵略範圍로 擴大하였으며, 明의 世宗 嘉靖年間(1522—66)에 華南沿海로 進出하여 中國의 海賊과 밀접한 제휴를 하는 한편 또한 말라카・마카오를 기지로 하여 새로이 온 포르투갈勢力과 결탁관계를 맺어 遠東海域의 密輸貿易에 종사 하였다.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당시 東南亞 各地區에서 活動하고 있던 상당한 부분의 中國人(泉・漳州人위주)들이 직접・간접으로 中・日의 海賊勢力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1567年 明穆宗이 海禁政策을 解除한 原因은 中國政府의 銀保有高가 不足하여 貿易을 통하여 外部로부터 銀貨를 導入하는 것이 긴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解除令의 공포는 당시 中國의 密貿易業者들의 影響力이 증가되었음을 충분히 表示하여 주고 있다. 단지 주의할 것은 倭寇를 防止하는 立場에서 解除令은 中・日間の 往來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中・日間の 직접 交通・貿易業務는 여전히 禁止된 채로 있었다. 한편 1570年代 스페인이 필리핀(1571年 Miguel Lopez Legaspi가 마닐라占領)을 점령하면서부터 이 지구는 華南地區의 華商들에게 그 중에도 특히 福建商人活動의 新天地가 되었으며 해마다 華船들이 다루어 마닐라로 가 食糧과 각종 中國의 物産과 產物을 공급하여 스페인이 필리핀을 경영하는

先天的인 條件의 결합을 보충 하였다. 이후 곧 1593年(日本 文祿 2年, 中國 萬曆 21年)부터 이른바 「御朱印船」 貿易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印度支那 貿易을 촉진시켰던 또하나의 중요한 要因이 되었다. 中・日間の 직접 交通 및 通商이 여전히 禁止당하였기 때문에 많은 華船들이 南쪽인 憲舖(Phố Hiến 越南語는 發音상 倒置되는 例가 종종있음)・會安(Hoi-an; Faifoo)・金邊(Phnom Penh)・阿瑜陀耶 등 東南亞 港口로 航海하여 이곳으로 오는 日船(즉 朱印船)과 交易에 종사하여 中國에서 필요로 하는 日本貨物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變態的인 中・日간의 交易은 대체로 동일시기에 시작한 네델란드 東印度會社의 乍바섬 經營과 같은 時期이므로 당시 遠東貿易은 크게 발달하여 越南의 會安・마닐라・阿瑜陀耶・金邊・耶加達(즉 Batavia)의 各地로 하여금 16世紀後半부터 많은 中・日商業移民이 定住하도록 하였고 또한 각각 唐人街와 「日本人町」을 건립하게 하였다.

阿瑜陀耶의 唐人區는 「奶街」라 불려 일찌기 14世紀末에 건립하였는데 馬歡의 『瀛涯勝覽』(暹羅條)의 記事에 15世紀初년에 存在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마닐라의 巴利安(Parian)은 1582년에 설치되고 舖憲의 「天朝街」와 會安의 「大唐街」 및 자카르타의 唐人街는 모두 17世紀初년에 차례로 세워졌다. 이러한 唐人街는 華商들이 集中的으로 居住하는 地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各國이 對內 및 對外交通 및 商業의 中心이 되었다. 우리가 특별히 注意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필리핀에 있어서 華僑와 華商을 일률적으로 Sangley(福建語로부터 온 「生理」(生意) 즉 商業을 가리킴)라 부르고 華僑區域을 Parian(멕시코語로 生絲市場의 뜻)이라 부르며, 越南에서는 古來로 一般中國人을 Nguoi Tau(商船을 타고 온 사람)이라 불렀으며 사이공의 華僑區는 Cho lon(舂嶺 즉 大市 Great Market)이라 부르고 阿瑜陀耶城內의 華人區域은 「奶街」(泰國語로 Nai(奶)는 領袖의 뜻), 말라카 및 자카르타의 華人區는 18世紀—19世紀의 歐羅巴地圖상에 모두 Bazar(市場의 뜻)라 불렀다. 이와 같은 사실은 近代 東南亞에 있어서 中國華僑가 담당하였던 商業的인 역할을 알 수가 있다.

1630年代부터 시작된 德川幕府의 鎖國政策은 東南亞各地의 「日本人町」을 점차 衰退하게 하였으며 반대로 오히려 各地의 唐人街는 포르투갈・스페인・네델란드의 遠東貿易 및 植民地經營의 進展에 따라 점차 확대 발전되었다. 한편 居留하고 있는 華僑商人들은 中・日兩國과 東南亞의 遠東貿易을 經營하였으며 또한 各地의 有力한 華商들은 甲比丹(Captain)・瑪腰(Major)・雷得珍(Lieutenant)・客長(싱가포르 華僑領袖)・亭主(말라카 華僑社會 중심지인 靑雲亭)・港務官(Shahbandar)이 되었으며 이들의 活動은 西歐各國의 植民地經營에 가장 有力한 支持勢力이었다. 더우기 1786년이래 英國 東印度會社는 檳榔嶼(Penang)・말라카・싱가포르・말레이半島의 各土侯國에서 勢力을 확대할 때 완전히 華商들과 華人勞動者의 협력에 의존하였다. 한편 1860年代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對 Indo China 三國(越南・캄보디아・라오스)에 대한 帝國主義의 侵略發展도 華商으로 하여금 그 地域에 移住 및 商業活動을 하도록하였다. 다시 1866년에 Burlingame

條約의締結로 華人是 中國官方으로부터 出洋의 自由를 公開的으로 承認받은 이후 中國으로부터 東南沿海地區에는 대량의 소위 계약 勞働者(속칭 猪仔 혹은 꾸리) 및 自由勞働者들이 南쪽으로 내려와 苛酷한 勞働條件아래 錫鑛・커피園・胡椒園・鐵道建設・ 고무園 및 그밖의 建設事業에 勞動力을 供給하였다. 이와 같은 勞働者 가운데는 비교적 力量이 있고 成功的인 人物이 農場主・港主・私設會黨의 領袖・商業機構의 主人으로 各地의 農業에 積極적으로 참가하여 開墾 또는 商業貿易活動을 하였다.

이와 같이 第1次 世界大戰이전에 華僑는 이미 小賣商・都賣商을 포함하여 仲介商 등의 商業流通活動에 종사하여 이를 지배하고 동시에 「買辦」(Comprador)의 機能으로 植民地 複合社會 가운데 白人統治계층과 土着農民계층의 中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第1次 世界大戰후 東南亞各地는 歐洲資本의 流入이 감소된 틈을 이용하여 華僑資本은 流通部門으로부터 生産企業 및 金融部門으로 進出하였고 또한 各國의 國民資本이 비교적 늦게 축적되는 것을 기회로 土着資本化하여 점차 各地의 經濟界에 견고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2次大戰이 경과하자 東南亞各地는 獨立을 획득하게 되고 華僑의 商業權도 점차 각지의 土着民族主義分子的 격렬한 攻擊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 各國의 政府도 民族資本을 육성하려는 입장과 政策을 채택하여 華僑의 경제활동 및 入國・移民 등등의 여러가지가 엄한 統制를 받게되었다. 또한 西歐의 植民階層의 소멸과 土着政權의 出現으로 華僑도 優越的인 社會地位에서 顛倒가 되었으며 물론 政治 社會上에 모두 當地人的 岐視와 差別・敵對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戰後 各地의 華僑는 生活上에 보편적으로 하나의 큰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母國政府는 內戰으로 效果的이고 實質的인 支持와 援助를 해줄 수 없었고 한편 텅빈 愛國精神 보다는 當地의 現實的인 利害에 優先하여 실제적인 상황아래 各地의 華僑는 生存을 위하여 부득불 土着社會의 一員이 되지 않으면 안되어 華系市民의 一員으로 土着人들과 융합, 積極적으로 제휴合作하여 장래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第2次世界大戰前後부터 中共政權이 성립하기까지 中國의 內戰期間 各國政府는 人道主義를 바탕으로 대량의 中國難民들을 收容하였다. 그러나 1949年 中共政府가 성립한 이후 中國人 自由로운 出國은 사실상 禁止당하였으며 한편 各地政府는 移民法을 차례로 公布하여 中國移民의 入國을 制限하는 政策을 취하였다. 泰國을 例로 들면 泰國政府는 1928年 移民法을 공포하여 內務長官이 外國移民의 數를 제한할 수 있는 權利를 갖고 있었으나 1946년까지는 어떠한 移民의 制限을 취하지 않았다. 1947年 5월부터 비로소 泰國에 들어올 수 있는 移民의 定員을 1萬名으로 하고 그 밖의 各國은 200名으로 하였다. 그러나 1949年 Lngang Phibun Song gram(피首相)이 재차 執權하자 每年 中國의 移民數를 그밖의 다른 나라와 함께 淸금 200名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華人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분명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中共과 東南亞當地政府 雙方的 制限政策은 새로운 中國의 移民을 대부분 단절시키게 하였고 또한 華僑의 土着化를 더욱 促進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물론 華人的 東南亞移住史上 새로운 時代의 開幕을 표시하기도 한다.

東南亞各國은 政治・經濟環境의 차이로 華僑에 대하여 취한 管制政策의 內容도 또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말한다면 經濟的인 壓迫方面에서 業種의 制限과 中國製品의 輸入制限 등을 實施하고, 民政方面에서는 強制入籍(例 越南)・中國移民의 制限을 실시하고, 文化面에서는 華僑學校의 설립과 華文教育의 制限 및 禁止政策을 실시하고, 中文刊行物(도서・신문・잡지 포함)의 取締를 강화하고 當地語文의 學習을 크게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面에서 華僑의 勢力은 튼튼하여 있고 各國政府는 노골적인 華僑의 排斥이 各國 經濟再建의 事業에 장애가 됨을 알기 때문에 근래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 설명한 것을 綜合하여 보면 東南亞華僑史는 그 移住의 形態로 볼때 대략 다음과 같이 세가지 段階로 나눌 수가 있다.

① 流寓時代(唐末~16世紀中葉)~「網首」貿易과 「住冬」의 습관이 가져온 中國商人의 出洋・滯留 및 歷代亡命者・難民의 流出은 各地에서 流寓社會를 形成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流寓와 母國사이의 關係는 비교적 소원하였으나 그들은 土着 王侯 및 人民의 尊敬과 후한 대우를 받아 일종의 특권적인 地位를 유지하고 또한 各國의 中國朝貢貿易을 협조하여 주었다. 그러나 後期는 中・日의 海賊勢力 및 포르투갈人들과 勾結하여 中國과 東南亞사이에서 密輸貿易에 종사하였다.

② 僑寓時代(16世紀 中葉~第2次 大戰末)~이 시기의 시작은 대체로 東南亞에서 스페인・네덜란드의 植民地 및 商業活動의 開始時期과 符合된다. 中期이후부터는 英・佛・美各國의 植民事業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 明末에 中國의 海禁政策이 解除되자 中國과 東南亞사이에서 交通・貿易의 自由化(明末清初의 時期(1661—1685)는 제외)가 이루어져 中國의 船舶은 中・日과 東南亞 사이의 貿易網을 擴大하고 唐人街의 건설 및 擴張・對西歐植民事業에 協助(物資의 供給과 勞動力의 제공)하였으며 各地의 商業流通부분을 支配하여 母國社會・經濟方面에 밀접한 關係를 맺는 現象이 그 重要 特徵이 된다. 이 時期의 華人是 대부분 적극적으로 海外에서 발전하려는 目的으로 出國하고 또한 「自手起家」「衣錦還鄉」이 畢生의 目的이었다. 18世紀 初 이전에 海外에 進出한 華人是 福建人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1720년부터 廣東公行(Cohang) 즉 外國貿易을 獨占하고 있는 廣東 13行성립이후 대량의 廣東人・潮州人・客家人 및 海南人들도 계속 海上으로 活動하였다. 그들이 當地에서 갖고 있는 信條는 「落葉歸根」이었다.

③ 同化時代(第2次 大戰後)~東南亞各國의 國家主義同化政策과 中國에서의 國共分裂・華僑자신의 政治・經濟上的 고려 등등으로 인하여 華僑는 강제로 과거에 갖고 있던 優越한 地位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當地社會와 융합하여 당지의 國籍을 취득하여 生存 및 發展을 도모하려

고 하였다. 一般生活의 指導理念도 「落地生根」으로 바뀌었다. 最近統計에 의하면 東南亞華僑의 總數는 1,554 萬으로 홍콩의 450 萬과 마카오의 30 萬을 합하면 모두 2,034 萬으로 東南亞 總人口 2億 7千萬의 약 10%가 된다.

東南亞에서今日の華僑가 큰 勢力을 갖게된 것은 몇가지 要因이 있다.

첫째는 華僑의 旺盛한 生命力이다. 華僑는 海外進出의 目的이 棄鄉謀生이었으며 그 生活態度가 본래 勤勉・儉約・忍耐의인메다가 또한 家族內의 構成員 혹은 同鄉人들간의 團結力이 強하고 公和하여 外地에서도 곳곳이 中國의 生活樣式을 지킬수 있고 또한 傳統의인 倫理・道德觀아래 生活을 하기 때문에 古來부터 安易한 生活을 하고 있는 土着人들과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둘째로 우리는 華僑社會에서 나타난 철저한 商業主義를 지적할 수 있다. 流寓時代에 南航한 東南亞의 華人들의 대부분은 商人(Trader)이었으며 各地 唐人街의 生活은 실제로 華船의 도착・出港・貿易品의 下船作業・販賣・當地產物의 수집구매・船舶의 修理・적재 등 事務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다. 바로 政治亡命者들도 貿易業者로 變身하여 生活을 유지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明末(1646—58의 12年동안) 中越 會安의 朱舜水와 海外商人들이 밀접한 關係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생각하면 알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19世紀時에 주의할 것은 契約 自由勞動者로 南쪽인 말레이에 와서 勞動者(꾸리)가 된 華僑는 貯蓄하자 소매상이나 큰 商店의 主人으로 轉業한 사실이다. 반대로 東南亞各國人들은 植民地時代後期에 이르기까지 그 대다수가 少農民階層으로 또 經濟水準도 地域性을 벗어나지 못한 自給自足の 農業經濟범위였다. 그러므로 華僑는 바로 白人統治階層을 대신하여 各種 寶物을 收集하고 農產物을 收集 購買하면서 都市와 農村간의 商業網을 발전시켜 나갔다. 즉 바꾸어 말한다면 과거 東南亞에 있던 華僑는 그 본래부터 갖고 있는 才質을 충분히 발휘하고 經濟的인 空間에서 활동하였다.

세째로 華僑社會에서 奇異하고 特別한 構造로서 주의할 것이 있다. 본래 華僑社會의 中樞的인 것으로 된 것이 바로 幫(幫)이다. 幫의 定義는 本籍및 方言이 서로 같은 移民集團으로 外地에서 本國政府의 保護와 援助가 缺乏된 상황아래 當지 政府의 壓迫과 土着社會에 대항하고 自己의 家庭・生命과 財產을 保護하기 위하거나 혹은 他省出身의 中國人과 對抗하기 위하여 競爭상설된 相扶相助의 組織이다. 이 名稱은 일찌기 中國古代・中世에 國內에서 使用되었으며 그 性格은 日本人의 「縣人會」와 비슷하다. 오늘날에는 國內의 큰 都市나 國外的 都市를 가리지 않고 幫이란 이름의 團體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그 內容과 종류는 대단히 많아 同業끼리의 公開團體에서부터 半公開 또는 秘密結社 심지어 賭徒・無賴輩의 組織까지 있다.

그러면 「幫」이란 명칭이 東南亞各地的 華僑團體를 가리켜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 인가? 이것은 尙待 解明하여야 할 問題가 있다. 唐宋으로부터 明末清初에 이르기까지 東南亞華僑發展에 關係된 오늘날의 史料로는 아직까지 우리는 「幫」의 名稱을 찾지 못하고 있다. 中國과 가장 近

接되어 있는 越南으로 말하면「會館」의 名稱은 17世紀末부터 찾아볼 수 있다. 例를 들면 僧인 大汕의 『海外紀事』에 따르면 康熙 34年(1695) 8月 6일부터 8月 28일까지 大汕이 會安 彌陀寺에 머물렀는데 「寺之右有關夫子廟, 崇祀最盛, 閩會館也」라 하였다. 그러나 「幫」 혹은 「幫長」의 制度가 文獻에 나타나기는 상당히 後代에 가서야 나오고 또한 그 年代 역시 精確하게 確定할수가 없다. 『大南寔錄正編』(第1紀 卷4)에 의하면 阮府는 1790년에 阮主가 管轄하고 있는 南越의 唐人僑寓者들을 籍貫인 廣東・福建・海南・潮州・上海 등으로 區別하여 團體를 조직하도록 命하고 또한 該府・記府를 설치하여 統制에 便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組織을 「五幫」 혹은 그 責任者를 「幫長」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滿鐵東亞經濟調查局에서 刊行한 『佛領印度支那の華僑』(p. 7)에는 越南華僑의 幫制는 嘉慶 13年(1814)에 시작되었다고 하나 그 근거는 알수가 없다. 藤原利一郎教授는 『大南寔錄正編』(第2紀 卷40, 明命 7年7月條)를 인용하여 越南華僑의 幫制를 明命 7年(1826)以前에 施行되었다고 하였다. 管見해 볼 때 順化(營市)의 福建會館에 가장 初期의 重修碑(嘉慶 6年 1807年)에 당시 福建의 「幫長」許部葵・「經理」侯利和 등 51名의 姓名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07年 즉 嘉慶初年에 이미 幫制가 있었음을 알수가 있다.

越南의 幫制는 阮朝의 華僑政策에 대한 一環으로 施行되었고 19世紀 後期에 이르러서는 또한 프랑스 政府가 이를 答습하였다. 그러나 東南亞 其他地區 幫制開設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定論이 없다. 通說에 의하면 清末 孫文・汪精衛 등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民國革命思想의 宣傳에 종사하였는데 華僑의 援助를 호소하면서 처음으로 華僑社會를 福建・廣府・湖州・涼州・客家 및 土生(Straits born Chinese)의 六幫으로 나누었다고 하였다. 만일 이 說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地區에서의 幫名稱의 사용이 辛亥革命前後가 되며, 때문에 華僑의 海外發展은 비록 1천년의 歷史가 되나 幫의 名稱은 오히려 대단히 새로운것이 된다고 하겠다.

中國의 傳統社會構組는 鄉(地)緣・血緣과 同一業種(業緣)의 三者가 交叉되어 이루어 졌으며 그리고 海外移民社會에서도 그들의 作用과 機能은 더욱 현저하였다. 地緣의 團體는 一般적으로 各級의 同鄉會를 가르키고 있다. 원칙적으로 幫은 일종의 方言을 말하는 社群을 代表하는 것으로 즉 社群의 構成員은 方言을 말하기 때문에 나뉘어 設立되는 것이었다. 例를 들면 漳・泉兩州人들은 한가지 종류의 方言으로 通用되는 厦語音系이기 때문에 이 두 州의 사람은 서로 溶化가 가능하게 되었다.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그들은 福建省에서 가장 일찌기 出國한 移民群으로 또한 가장 일찌기 海外에서 外國人(즉 蕃)과 接觸하였기 때문에 漳・泉兩州人은 福建人을 代表하게 되었으며 각지에서 福建幫을 조직하고 漳泉話(말, 閩(福建)南話)도 福建話이며 漳・泉州人만을 福建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후에 온 閩(福建)北人(즉 福州・福清・興化 등)은 모두 福建人의 범위에서 물러 나게 되었다.

幫이 설립한 集會所를 會館(縣・州・府・省 혹은 各縣 聯合의 各級)이라 부르고 館內에는 故鄉과 관계있는 人物, 商業保護神의 關羽・ 혹은 航海를 保護하는 天后(媽祖)에 대한 祭祀를 春